

# 통쾌하게 까발린 부자들의 부도덕한 속살

## 부자들의 역습

슈레베르 지음·정상필 번역

최근 복지부 부담에 싱가포르가 30년 만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를 단행했다. 과거 감세정책을 폈던 미국도 브라질도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건넸다고 나섰다. 부자증세는 한국에서도 화두다. 현 정부가 표방한 '증세 없는 복지'의 논란과 함께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으로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은 않다.

프랑스의 언론인 장 루이 세르방 슈레베르의 '부자들의 역습'은 너무 많이 가진자들의 속살을 까발린다. 통쾌할 정도로 내용이 흥미롭다. 전 광주일보 프랑스 특파원 정상필씨가 '프랑스만의 독특한 돈에 대한 정서'를 한국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했다.



책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한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15세기 아프리카 말리의 왕만사 무사가 손에 꼽혔다. 그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0억 달러 가량의 부를 소유했고, 씹숨이도 컸다. 빌 게이츠 등 현대의 부자들이 600억~7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만사 무사의 부는 놀라울 정도였다.

'부자들의 역습'이 두려운 것은 부자들이 더욱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에 있다. 미국 의회 예산처 통계에 따르면 1979~2006년 상위 10% 부자들의 평균 수입이 100% 이상 상승하는 동안 하위

20% 가정은 10% 오르는데 그쳤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평균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차이는 3대 1 정도다. 하지만 상위 10% 중 슈퍼리치라 할 수 있는 1%의 평균 소득이 상위 10%의 평균 소득보다 150배가량 많다. 돈이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전통산업의 수익률이 바닥을 헤매던 시점에 금융으로부터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돈은 빛의 속도로 순환한다. 국경을 넘나들며 배를 채우고 있는 부자들은 또한 세계 각지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엄청난 양의 재산을 감추고 있다.

부의 독점은 수많은 불평등을 낳는다. 대표적인 게 교육이다. 교사와 전문직 자녀의 21%가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에 입학한다. 반면, 자격증이 없는 하급 노동자의 경우 자녀가 이곳에

갈 수 있는 비율은 0.8%에 불과하고, 일반 사무원의 자녀는 4%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권층 자녀의 입학 비율이 서민층 자녀에 비해 스무 배 이상 높다. 배움을 통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또한 돈 이외의 요소를 통해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예술 등에 돈을 지원하기도 한다. 저자는 부자의 아킬레스건은 법적인 것보다는 도덕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정치적으로 부자들은 강력한 하나의 사회적 주체가 됐고, 세계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한다.

역습이 있다면 반격도 있어야 할 터. 저자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의 연결, NGO단체의 역할을 꼽는다.

〈레디셋고·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산은 모든 다른 기준들의 연관성보다 부의 출처를 더 잘 설명해 준다. <레디셋고 제공>

## 시인들의 풍류가 깃든 곳 한시에 취해 중국을 거닐다

### 시와 술...중국 인문 기행

송재소 지음

"향로봉에 해 비쳐 붉은 안개 이는데/ 저 멀리 폭포가 앞 내인 양 걸려 있네/ 3천 척을 곧장 날아 아래로 떨어지니/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 게 아닌지"(이백 '망어산폭포')

이백을 비롯한 소동파, 백거이, 왕유, 도연명 등은 술과 차를 나누며 중국 땅 곳곳에 시의 정신을 새겨 놓았다. 그만큼 중국은 오래전 살다간 시인 묵객과 영웅호걸들이 시를 읊고 술과 차를 나눴던 역사의 현장으로, 인문학 향기가 가득한 곳이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인문학 자산은 오늘날 중국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문학자인 송재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중국 인문 기행서 '시와 술과 차가 있는 중국 인문 기행'을 펴냈다.

'중국 인문 기행' 첫권의 무대는 강서성과 안휘성 그리고 남경이 주 무대다. 강서성에는 이백과 백거이의 시혼이 서려 있는 여산이 있고, 안휘성 도처에는 이백의 유적이 산



재해 있다. 저자는 이 일대를 걸고 즐기면서 옛 이야기부터 이곳을 다녀간 현대 중국인들의 일화와 시문

까지, 중화문명의 진수를 깊이 있게 꿰어냈다. 그는 책에서 술과 차가 중국 문화의 불가결의 요소라고 밝힌다. 시인들의 풍류가 깃든 곳인 만큼 지역마다 특색 있는 술과 차를 맛보고 그 기원, 술과 차를 앞에 두고 명문을 남긴 사람들의 일화, 품평 등을 더해 중국 기행을 완성했다.

송 교수는 중국 문인들이 시를 읊던 자리에서 손수 지은 시로 화답하기도 한다. 앞서 이백의 시를 떠올리며 "향로봉 아래에 긴 시내가 걸려 있어/ 기절할 자태가 적선 감동시켰는데/ 나르는 폭포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 시인은 말 잡으려 영원히 귀천했네"라고 노래한다.

〈창비·1만8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아우슈비츠의 여자들=역사, 인권 분야에서 활약하는 영국의 기록문학 작가 캐롤라인 무어헤드가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개인적 기록과 공문서, 생존자 구술을 채록해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르포르타주. 프랑스의 평범한 아내, 어머니, 딸이었던 여자들이 '내 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울 수 없다'며 아우슈비츠의 '정치범'이 되어 죽음의 수용소를 겪기까지의 체험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현실문화·1만8000원〉

▲육리자, 한 수 읽을 읽는 처세의 미학=육리자는 제갈량과 함께 중국 역대 최고의 지낭(智囊)으로 손꼽히는 유기가 원형 교체라는 혼란기 속에서 세상의 무함과 참극을 피해 산속에 집거하며 지은 책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한 어지러운 시기에 그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처세의 구현방략이



그대로 녹아 있다. 책 속에 등장하는 50여 가지 사례는 오늘날 일과 사람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공평한가?=2005년 이후 진행되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의 결과물이다.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고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와 인권의 바탕에 비



추어 재판 과정에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북콤마·2만2000원〉

▲행복만을 보았다=프랑스의 유명한 카피라이터 출신 작가인 그레구아르 드라쿠르의 소설. 우리 인생의 가혹함과 그에 맞서는 삶의 희망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의 작품 중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강력한 작품으로, 프랑스에서 출간된 지 1개월 만에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 목숨의 가치를 매기는 일을 해왔던 한 남자가 문득, 자신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쯤 되는지 따져보는 데서 출발한다. 〈문학테라피·1만3800원〉



▲사람을 살리는 음식 사람을 죽이는 음식=기존의 식품학, 영양학, 식품학은 물론 한의학도 다른 시각에서 음식과 약초를 통찰하고 있다. 약효란 어떤 성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억에서 나오며, 그 기억이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음식과 약초에 숨겨진 블랙박스를 해독함으로써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의논·1만5000원〉

▲미디어, 빅뱅 없는 세상=그동안 등한시되어온 미디어 도입 역사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는 책. 이 책은 미디어를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한 패러다임을 극복하려는 시도이자, 이용자를 미디어 담론의 객체에서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변혁의 시작이다. 저자는 정치와 산업 중심의 관점이 간과한 미디어 이용자의 스토리를 발굴해 미디어 담론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한울아카데미·2만1000원〉

## 어린이 책

▲선생님은 몬스터=예민한 아이 바비와 괴팍한 커비 선생님이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재미 있게 그려 낸 그림책. 피터 브라운은 바비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선생님의 모습을 세심하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계절·1만1000원〉



▲행복한 청소년부=2015 초등 6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도서. 거리를 청소년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삶의 진정



한 행복과 배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동화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참된 배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그림 동화를 통해 알게 해준다. 〈풀빛·1만500원〉

▲슈퍼 영웅 번신 페인트=노르웨이 문화부 아동문학상, 베스트 데뷔 작가상, 2014 북유럽 평화회 아동문학상 수상작. 평범하고 나약한 소년 루네가 밤이면 갈색 망토를 두르고 '슈퍼 영웅 브루네'로 번신하여, 자신을 괴롭힌 동네 불량배들을 혼

내 주는 통쾌한 이야기이다. 〈스콜라·9800원〉

▲토끼 사냥에서 시작한 낙낙한 경제 교실=루푸스는 토끼 사냥꾼에서 토끼 가족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고, 꼬맹이 리사는 루푸스의 사업에 투자하는 자본가가 되고, 할아버지는 은행가가 되고, 만이 조에는 주식 중개인으로 등장하고... 경제가 단순히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살림살이의 규칙임을 알려준다. 〈길벗어린이·1만원〉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개의 현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다. 192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선언하고 나선 뒤로 총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사랑 주인이다.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의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